불황탈출 '합작 영화' 붐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합작 영화인 오우삼 감독의 '적벽대전'은 아시아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800억원)가 투입된 작품이다.

'적벽대전…' 한·중·일 공동 참여 아시아 프로젝트

한·불 '개미'…미 올로케 '스트리트 오브 드림'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영화계가 '합작 영화'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중국과 합작 형태였던 데 반해 최근에는 프랑스, 미국 등 합작 대상국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1991년 발간 후 전 세계적으로 1천 8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 '개미'(전 3권)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투자하는 형식의 한불 합작영화로 제작된다.

'뇌', '나무'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데뷔작인 소설 '개미'의 영화화는 김문생 감독의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를 감명 깊게 본 베르메르가 김 감독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국과 프랑스 제작사가 50%씩 투자하는 프로젝트인 영화 '개미'는 3D 애니메이션 60%와 실사 40%로 제작되며 총 16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지난 1년 반 동안 김감독과 '개미'의 영화화 작업에 대해 논의했던 베르베르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 김감독을 직접 만났으며 영화화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7월 10일 전 세계 동시 개봉하는 '적벽대전-거대한 전쟁의 시작'은 한국의 최대 투자·배급사중 하나인 쇼박스(주)미디어 플렉스와 중국, 일본이 공동 참여하는 아시아 프로젝트다.

'페이스 오프', '미션임파서블'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오우삼 감독의 중국 복귀작으로 아시아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인 800억원이 투입된 '적벽대전'은 한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 제작비 대비 90%의 선판매가 이뤄진 상태.

양조위·금성무·장첸 등 스타급 배우들이 총출동한 '적벽대전'은 '삼국지' 중 가장 유명한 대목으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과 조조가 벌였던 전투가 배경이다. 1편에 이어 겨울에 곧바로 2편이 개봉될 예정이다.

한·미·일 합작 영화도 준비중에 있다.

'조폭 마누라'의 현진 시네마와 일본의 와이즈 재팬, 미국의 FR 프로덕션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트리트 오브 드림'이 화제의 작품이다.

1960년대 뉴욕에서 활동했던 실존 인물인 동양계 마피아 몬타나 조와 뉴욕 뒷골목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릴 '스트리트 오브 드림'은 특히 할리우드 최고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마피아 대부 바바리오 역을, 앤디 가르시아가 몬타나 조와 반목하는 마피아 역을 연기한다.

여기에 한국 배우 최민수가 몬타나 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한국인 친구 에디로 출연한다.

총 400억원의 제작비와 미국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신예 레이몬드 드퀠리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오는 2009년 여름 전세계 동시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격자'를 통해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오른 하정우는 한일 합작 영화 '보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일본 니가타에서 크랭크 인 하는 '보트'는 일본으로 밀수 심부름을 하는 한국인 청년과 그의 일본인 파트너가 한국인 여자를 일본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사건을 그린 작품. '내 청춘에게 고함'의 김영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 '메종 드 히미코'의 작가 와타나베 아야가 시나리오를 썼다.

하정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일본 배우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눈물이 주룩주룩'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츠마부키 사토시다.

그밖에 촬영을 마친 장동건 주연의 '런드리 워리어'는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 합작이며 장혁이 주연을 맡은 '댄스 오브 더 드래곤'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3개국 합작 영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화명	내 용
강철중 : 공공의 적 1-1	강동서 강력반 골통 형사 강철중(설경구)이 5년만에 돌아왔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둠스데이 : 지구 최후의 날	지구에 전세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엔터	
겟 스마트	피터 시걸 감독의 '총알탄 사나이3' '첫 키스만 50번째'에 이은 코믹 스파이물.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21	MIT 공학도들이 화려한 도박꾼으로 변신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CGV(상무·첨단)	
카르마	'귀신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는 태국의 옛 속담을 모티브로 만든 공포 영화. 15세 이상 관람가.
씨너스 전대	
섹스 앤더 시티	캐리, 사만다 등 드라마 속 네명의 주인공들이 4년 만에 영화로 모습을 드러냈다. 18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걸스카우트	김선아, 나문희, 이경실 주연의 코믹 범죄 드라마. 곗돈을 지키기 위해 봉천 3동 그녀들이 뭉쳤다. 18세 이상 관람가.
엔터	
쿵푸 팬더	키 120㎝, 몸무게 160㎏에 시속 30㎝의 팬더곰이 쿵푸의 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씨너스 전대, 엔터	
인크레더블 헐크	녹색 괴물 '헐크'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부 군대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쫓기게 된다. 15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흑심모녀	왕공주 치매할머니, 억척 터프 엄마, 철부지 딸에게 찾아온 사차원 완소 꽃돌이와 좌충우돌 동거(?)스토리. 12세 이상 관람가.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광주제일, 하미, 엔터	
해프닝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현상들이 뉴욕의 곳곳에서 발생되는 공포물. 18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광주제일, 하미, 엔터	
도화선	증거를 찾기 위해 홍콩 범죄조직에 형사를 조직원으로 위장 투입시킨 이야기. 18세 이상 관람가.
디 아이	폭죽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각막이식 수술 후 이상한 일을 겪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하미, 엔터	
라스베가스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일	300만 달러를 차지 위해 조이(카메론 디아즈)와 잭(애쉬튼 커처)이 벌이는 기절초풍 동거 작전. 15세 이상 관람가.
CGV(상무)	
인디아나 존스 4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가 이번엔 전설의 크리스털 해골을 찾아 나선다. 12세 이상 관람가.
롯데(광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광주 제일, 하미, 엔터	

주목! 이 영화

'강철중 : 공공의 적 1-1'

돌아온 강철중… 독한 놈 vs 나쁜 놈

한국 코미디 영화 최대 히트작 중 하나인 '공공의 적' 세번째 시리즈다.

전편의 감독이었던 강우석 감독과 전작에서 강철중으로 열연했던 설경구가 그대로 출연하며 충무로의 재간꾼 장진 감독이 시나리오를 써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작품이다.

강동서 강력반 골통 형사 강철중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건 현장을 누비고 다니지만 15년 차 형사생활에 남은 거라곤 달랑 전세 집 한 칸 뿐이다.

빡센 형사생활에 넌더리가 난 그는 급기야 사표를 제출하지만 한 고등학교에서 터진 살인사건 때문에 그의 사표 수리는 미뤄진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살인사건은 죽은 학생의 지문이 얼마 전 강동서 관할에서 일어난 도축장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남겨진 지문과 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강철중은 죽은 피해 학생이 '거성'이란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살인 사건과 거성의 관계를 캐기 시작한다.

이성재·정준호 등이 열연했던 악역은 연기파 배우 정재영이 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